

내용 요약

『후기 오스만 제국 약사』는 1789~1918년까지 급격한 사회 변혁이 일어났던 오스만 제국 후기에 관한 역사서이다. 저자 하니오글루는 하나의 사건 배후에 있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가령 그는 지방 영주, 민족주의자, 외국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는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술탄의 투쟁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그러한 투쟁은 근대화의 도전에 대한 오스만의 대응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서론은 19세기 후반기의 오스만의 현실과 그배경, 오스만 제국의 유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1장 '19세기 전환기의 오스만 제국'은 1774년 술탄 무스타파 3세(Sultan Mustafa III 1757~1773 재위)가어떠한 개혁의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2장 '근대화의 도전에 대한 오스만 내부의 반응'은 19세기 말 군사적, 경제적, 행정적인 도전의 충격으로 어쩔 수 없이 개혁해야 하는 상황을 적었다. 3장 '개혁의 시대 여명'은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승리가 단명한 상황을 서술하였다. 4장 '탄지마트 시대'는 1839년 11월 3일 선포된 개혁 정책을 설명하였다. 5장 '탄지마트의 황혼과 하미디아 정권'은 1861년 술탄 압둘메지드 1세(Abdulmejid I 1839~1861 재위)의 사망 이후 궁정과관료 조직 사이의 권력 갈등으로 개혁이 쇠퇴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6장 '혁명에서 제국의 붕괴까지: 오스만 제국 후기의 가장 긴 10년'은 청년터키당의 혁명으로하미디아 정권이 전복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저자의 결론에 따르면, 19세기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 투쟁의 역사였고, 중앙이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으로의 권력 누수가 일어난 시기였다.